임대아파트 임대료 입주민 불만

보증금 부족시 월세로 대체 경우 전환이율 높아… 협의없이 일방적 인상도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임대 아파트의 경우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 보증금이 부족해 월세로 대체하는 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이율 또한 높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임대 아파트가 원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소득 주거안전을 위해 저렴한 수준의 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지난 2009년 공급당시 임대보증금이 8,990만원인 전주시 'A'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과의 갈등 폭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목돈이 없어 반전세 임대조건으로 입주할 경우 보증금 5,600~5,800만원에 월 임대료가 40만원을 내야 한다.

전주시 'B' 임대 아파트는 입주민과 아무런 협의없이 임대료를 5% 인상해 입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저렴하다는 인식이 무색해진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이자가 초저 금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간 건설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전북지역 주택시장을 외지 업체들이 독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지나치게 이윤에만 치중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하림식품·HS푸드, 익산 투자 본격화

2018년까지 제 4산단에 공장 설립 630명 고용 예정

하림그룹 계열사인 ㈜하림식품과 ㈜HS푸드가 지난 9일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 향토기업인 하림그룹은 익산 제4산업 산업단지에 총2,250억원 투자하여 전라북도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종합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익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이강수 하림식품 대표이사, 김기만 HS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분양계약은 지난 1월26일에 체결된 투자협약(MOU) 이후 5만3,532㎡에 대한 계약이 새롭게 또 체결 되었다.

이로써 하림그룹은 지난 2014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6만7,177㎡와 함께 총 면적 12만709㎡를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에 확보함으로써 종합식품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림식품은 9만7,925㎡에 1,750억원을 투자하여 일반가공식품(대용식) 제품군을 확대하는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20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림그룹과 일본의 쌀가공 전문기업인 신메이(神明)홀딩스가 합작 설립한 ㈜HS푸드는 2만784㎡ 부지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쌀 가공제품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약 110명의 신규 고용이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분양계약 체결 후 ㈜하림식품 이강수 대표이사와 ㈜HS푸드 김기만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갖고 "국내 식품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하림그룹의 이번 대규모 투자는 하림그룹과 지역사회가 상생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향토기업인 하림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익산 시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오늘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설명회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최… 신생벤처-청년인재 매칭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 신생기업 구인난과 청년인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설명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2층 도전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업력 7년 이하 도내 신생업체를 대상으로 '신생벤처(Start-up)-청년인재 매칭사업'등 인건비 및 채용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업 인사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및 일대일 상담부스가 운영된다.

신생벤처(Start-up)-청년인재 매칭사업은 업력 7년 이하 신생 유망기업과 만 34세 미만의 청년층이 파트너십을 체결해 창업노하우를 공유하고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신규 고용한 청년인재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관계자는 10일 오후 2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2층 도전실로 방문하면 된다. 앞으로도 기업 관계자간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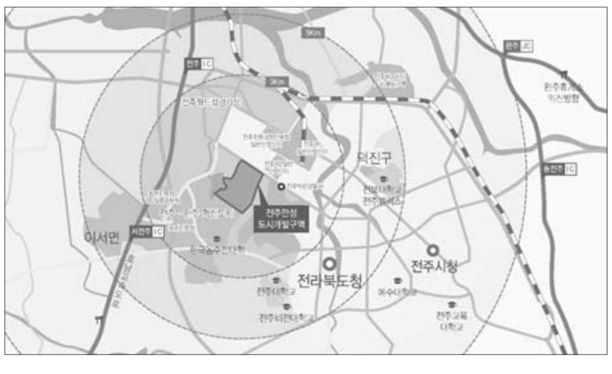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새만금 미래전략 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2020년) 완료 후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내부개발 2단계에 대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9일『새만금 미래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는 2020년 완료 예정으로 개발 후 다양한 용도의 토지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박종대 단장은 "새만금사업은 1991년 사업초기부터 농어촌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내부개발 1단계 이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 만성 도시개발 사업은 만성동 400번지 일원 143만4,000㎡규모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법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주 만성 도시개발 사업 '순항'

전북개발공… 12월 준공 목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중인 전주 만성 도시개발 사업이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은 만성동 400번지 일원 143만4,000㎡규모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법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구역분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중 전북개발공사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 중 60%인 85㎡규모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는 택지분양 현황이 상업용지 100%, 공동주택용지 82%, 단독주택용지 78% 등을 분양해 전체 면적 대비 76%를 분양완료했다.

아울러 부지 조성공사는 81%(계획대비 10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올해 말이면 택지분양자들의 택지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 공정관리 뿐만 아니라 재난 없는 사업장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온고을로와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도로인 정여립로(대로1-16호선)를 개통하기 위한 공사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여립로 개통 시에는 김제시 방면에서 유입되는 교통량 분산으로, 차량 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전주만성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

LH전북지역본부 99필지 일반 실수요자에게

LH전북지역본부는 전주만성지구 단독주택용지 99필지를 일반 실수요자에 공급한다.

9일 LH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주거전용 46필지(254~298㎡), 점포겸용주택용지 53필지(246~286㎡) 규모이다.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주거전용 1억2,300~1억4,800만원, 점포겸용 1억5,900~1억9,600만원이다. 평균 분양가는 각각 161만5,000원과 214만원(3.3㎡당) 수준이다.

전주만성지구는 143만㎡ 부지에 총 5,789세대(호)가 건설되는 복합 다기능지구로서 공공기관, 교육 및 업무시설, 풍부한 녹지, 교통 등 도심 배후시설이 들어선다.

이번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6월24일~6. 27일 동안 진행된다.

낙찰자 결정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6월28일~6월 3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전북지방중소기업청 30일까지

'창업과제' 2차 신청 접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이달 말까지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창업과제'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는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며, 창업 3년 이하 기업은 최대 1억5,000만원, 창업 3년 초과 ~ 7년 이하 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TEL 063-210-6443)로 문의 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신보, 창립 40주년 투자로드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9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기업의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신보 2016 투자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앞서 신보는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이 협력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부 순서는 전국 영업점에서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우수기업 중 8개 기업을 선별해 신보가 직접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오디션으로 진행됐으며,

2부 순서는 신보로부터 투자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중에서 신규투자자금을 원하는 31개 기업을 16개 벤처캐피탈 및 대기업에 소개해 민간자본의 마중물 역할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권장섭 신보 자본시장부문 담당이사는 "신보는 앞으로도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구독문의 288-9700